

유가급등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

1. 국제유가 및 납사가 동향과 전망

- 국제유가는 원유증산의 제약 및 정제설비의 부족으로 원유 수요증가에 공급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
 -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Dubai유는 8월 5일 현재 배럴당 54.60달러로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보다 20.40달러(59.6%) 상승하였고, WTI와 Brent유도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보다 각각 18.30달러(41.4%), 21.52달러(54.2%) 상승한 배럴당 62.45달러, 61.21달러를 기록
- 하반기 평균유가는 수급완화 요인의 부재와 테러 위협 등으로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
- 한편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자재인 납사가격도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동반 급등하고 있음
 - 납사가(C&F Japan) : 412\$('04.12) → 477\$('05.4) → 513\$('05.8.5)

2.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

■ 원료비용 상승, 가격전가 어려워 수익성 악화

- 석유화학은 원가 중 납사가 비중이 70%에 달해 유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됨.

-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원료와 연료를 모두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음
- 납사價 10% 상승시 기초유분은 7%, 최종제품은 3~4%의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

<주요석유화학제품 가격추이>

(단위: \$/MT)

제품명	'04.12 (A)	'05.3	6	7 (B)	8.5 (C)	증감률	
						(A/C)	(B/C)
원유 (\$/Bbl)	34.20	45.87	51.08	52.79	54.60	59.6%	3.4%
납 사	412	484	438	466	513	24.6%	10.1%
에 틸 렌	1,005	1,096	763	932	930	-7.5%	-0.2%
프로필렌	905	1,068	796	889	920	1.7%	3.5%
S M	733	1,118	776	827	735	0.3%	-11.1%
LDPE (film)	1,000	1,310	1,025	1,078	1,020	2.0%	-5.4%
HDPE (inj)	1,244	1,270	990	1,066	1,050	-15.6%	-1.5%
P P (homo)	1,060	1,119	921	1,000	1,020	-3.8%	2.0%
P S (GP)	1,011	1,124	978	1,066	1,070	5.8%	0.4%
P V C	1,196	1,383	1,080	1,198	1,120	-6.4%	-6.5%
E G	894	910	705	754	770	-13.9%	2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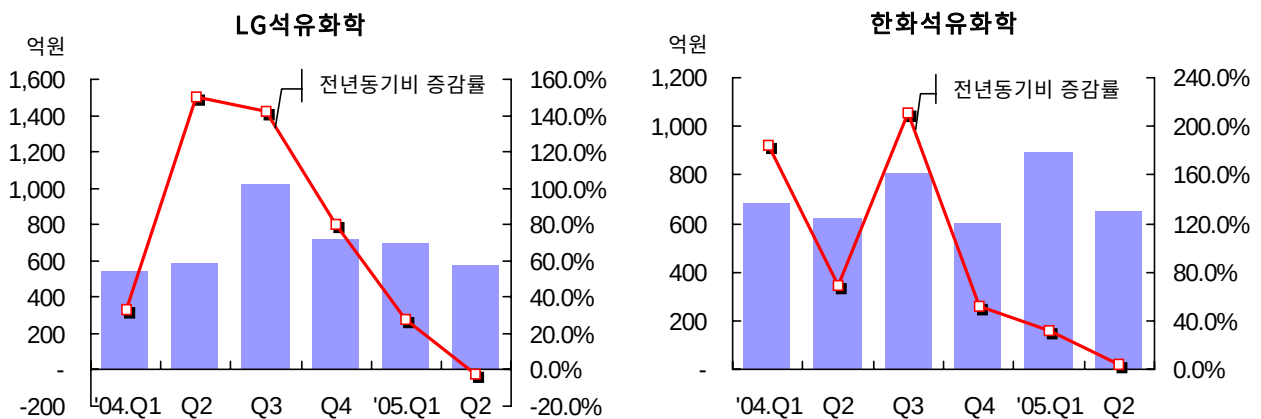
§ 기초유분 · 중간원료는 CFR 동남아, 합성수지는 CFR Far East 기준가격임.

- 석유화학은 기초소재산업으로 관련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해 유가 및 납사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의 가격 전가는 국내외 경기와 수급에 달려있는데
 - 최근 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은 중국의 BASF-YPC 및 Secco의 신규 설비 가동으로 2/4분기부터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약세기조, 원가 상승요인을 수출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
 - 내수비중이 높은 기업 역시 국내경기 침체 지속으로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원가 상승요인의 제품가격 전가에 한계가 있음

○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국내외 시황악화에 따라 원가 상승 요인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

-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수익성은 유가급등과 제품가격 약세를 보였던 '05년 2/4분기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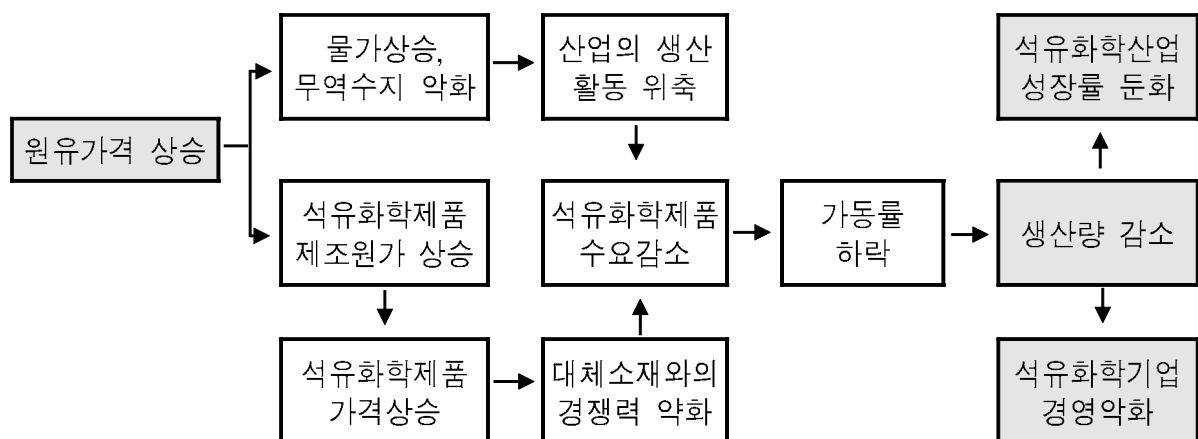
<주요 석유화학기업의 영업이익>



■ 유가 추가상승 및 장기화시 부정적 영향 확대

○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자체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, 석유화학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

<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의 저성장 메카니즘 >



■ 대응방안 및 건의사항

- 국제유가의 급등과 위안화절상 등 최근의 환경 변화는 석유화학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
 - 더욱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연결, 경기변동에 민감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부진을 초래할 전망
 -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계는 납사 등 기초원재료의 도입선 다양화와 대체원료 확보 등 노력을 전개하고 최대한의 원가절감 노력을 추진중에 있으나
 - 기업의 경쟁력강화 노력 지원을 위해서는 석유화학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망함
 - 납사 대체원료인 NGL에 대한 할당관세 재 적용
 -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'03.7부터 나프타 등 주요 비경쟁 기초원자재의 관세를 무세화
 - 그러나 '05 할당관세 운용(안) 검토과정에서 납사대체원료인 NGL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
- ※ NGL(엔지엘; Natural Gas Liquid) : 天然가스液 또는 컨덴세이트(Condensate)라고 불리며, 원유 또는 천연가스 채굴과정에서 생산, 나프타 대체 석유화학 원료로 주로 이용(전량 수입)
- NGL은 나프타 대체원료로 개발된 제품으로 높은 경제성과 원료조달 용이성으로 세계적으로 활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,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나프타와 동일 세율을 적용
 -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으로 국제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NGL에 대한 할당관세 0세율 적용이 반드시 필요함. 조속한 시일내에 할당관세 재적용을 요망

- 비경쟁 석유화학 기초원자재의 무세화

- 석유화학제품은 원가중 원재료 비중이 60~70%를 차지하여, 원료의 저가·안정 확보가 대외 경쟁력의 관건임
-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공급이 크게 부족한 품목의 경우에도 일본 등 주요국가에 비해 관세율이 높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
- 따라서 국내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필요

< 비경쟁 석유화학 기초원자재 현황 >

품 목	수입 비중	현행 관세율	외국 관세율				
			일본	미국	유럽	대만	싱가폴
납사 (2710.11.4000)	50%	기본 5% 할당 0%	0.04%	0.35%	0%	0%	0%
NGL (2710.11.5000)	50%	기본 5% 잠정 1%	0.04%	0.35%	0%	0%	0%
프로판 (2711.12.0000)	50%	기본 5% 할당 1.5%	0%	0%	0%	0%	0%
크실올 (2707.30.0000)	50%	기본 5%	0%	0%	0%	1.2%	0%
메탄올 (2905.11.0000)	50%	기본 3%	0%	0%	0%	0%	0%
이소노닐알콜 (2905.19.3000)	50%	기본 5%	4.7%	3.7%	0%	1%	0%
이소데실알콜 (2905.19.9030)	50%	기본 5%	4.7%	3.7%	0%	1%	0%